툭하면 공개수배…시민이 잡아달라?

10만원 강도까지 … 얼굴 알 수 없는 전단지 보고 신고할지 의문

광주경찰, 올 4건…대상·시점 등 기준 모호 문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한 고육지책인가? 미진한 수사력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려는 책임전가인가?

최근 광주지역에서 강도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공개 수배가 잦아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수배는 신속한 용의자 체포로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한 방편이지만 대상과 시점·기준 등의 매뉴얼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0만원짜리도 공개수배=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각 경찰서 공개수배 건수는 모두 4건이다.

경찰서별로는 북부경찰이 2건, 남부와 광산경찰이 각각 1건씩이다. 강도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몇몇 케이스는 자체 수사력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시민들의 협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과 지난달 18일 북구 운암동과 북구 중흥동에서 일어난 슈퍼마켓·금은방 강도사건은 초동수사와 목격자 제보가 중요한데도,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과 12일이나 지나서야 공개수배했다.

지난달 24일 광산구 쌍암동에서 발생한 모 은행 현금지급기 앞 강도사건은 인명피해없이 피해액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단 이틀 만에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개수배 했다"고 밝혔다.

◇수배 내용 부실=경찰에서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지 내용도 부실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남구 봉선동 A편의점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의 범인은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붙잡혔지만, 전단지 '덕'(?)은 보지 못했다는 평이다.

당시 전단지에는 당시 범행 사진이 실렸지만 희미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키·나이·체격·옷 차림 등 인상착의도 애매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민 김모(24·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얼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전단지를 보고 경찰에 제보할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지 모르겠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공개수배 오락가락왜?=공개수배 여부는 각 경찰서 형사과 사건담당 팀장(경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공개수배 원칙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 규칙(제2절 171조·사건수배)상 경찰관이 사건수배를 할 때는 관련 서식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서식에는 범죄 일시·수배 관서·인적사항 등만 기재하면 된다. 공개수배에 대한 원칙·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광주북부경찰 형사과 한 직원은 "경찰 수사력으로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수배에 나선다"면서 "공개수배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사건별로 시점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

광주·전남 주민 애도물결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영결식'이 열린 29일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이 애도했다.

지역민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합동영결식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으로 모여들었고, 광주시와 전남도 직원들은 청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역, 광주공항 등지의 대합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승객들은 합동영결식에서 희생자의 한 전우가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 미안하다"는 조사를 낭독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고재숙(여·69)씨는 "모든 장병들이 자식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 편안히 쉬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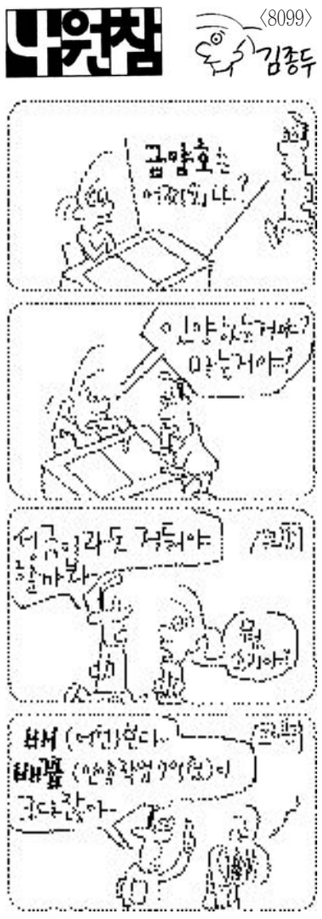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90여 명은 광주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다시 한 번 천안함 장병의 희생을 애도했다.

정재혁(39)씨는 "장병들을 가슴에 묻어야 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천안함 사고원인이 하루빨리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상민 하사의 고향인 순천지역 주민들도 이날 영결식 장면을 지켜보며 넋을 달랬다. 조진수(45)씨는 "오전 10시에 희생장병을 애도하는 사이렌 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섰다"며 "이 하사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며 내내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에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10만여 명의 네티즌이 추모글을 남겼으며, 천안함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분향소에도 8100여개의 추모글이 올라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종기 당진군수 추격 검거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잠적 5일 만인 지난 28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민 군수는 이날 충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인과 만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잠복하다 검거를 시도하자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의 속도로 1시간 가량 도주하다 서울 신월동 인근 도로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편파 경찰' 로 비방 했다가…

40대女 '악독한 행동' 실형

광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경찰서 이○○ 경사는 편파조서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옥살이 시킨 것을 사죄하라."

지난해 5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는 전남지역 이모 경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근무처와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거론된 이 글로 인해 '편파 경찰'로 낙인 찍혔다.

주부 조모(48)씨는 동생의 무고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9차례에 걸쳐 아고라 토론광장에 이 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34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경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법원은 이같은 조씨의 행위를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악독한 행동'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29일 인터넷에 경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 동생이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이듬해 5~8월 포털에 이 경사를 비방하는 글을 9차례 게시하고, 34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수사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자 검찰청 앞 도로변에 이 경사의 편파수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까지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이 엄수된 29일 오전 광주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 되는 영결식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지리학과 학과비 카드깡

교수 연루 여부 수사 초점

전남대 지리학과 전 조교의 학과운영비 카드깡 사건〈본보 4월 24일자 3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지난 2007~2008년까지 학과카드를 이용해 2600만원을 현금화하고 안마시술소·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교 박모(31)씨를 소환, 누구와 함께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해당 학과 교수 연구비 사용 내역서와 교수 연구목록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 연구비 사용처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전남대 산학연구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경찰은 또 박씨가 학과카드를 불법 전용한 것이 교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교 한 사람이 학과카드를 불법 전용한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성매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형마트 때문에 매출 급감"

광주서 슈퍼주인 목매 숨져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김모(51)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김씨의 딸(22)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아내가 슈퍼 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사이 안방의 커튼 봉에 목을 맸으며, 김씨가 숨진 안방에는 평소 보던 성경책이 놓여있었다.

김씨 부부는 인근의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왔으나, 3년 전 450m 거리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긴 뒤로 매출이 크게 줄어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7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과 최근 가게 매출 급감으로 고민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자신의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소 취하…'회피 연아' 사건 종결

쌍나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9일 발표.

○…경찰 관계자는 "유 장관이 고소 취하장을 지난 28일 문화부 대변인실 직원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

○…'회피 연아' 동영상은 지난달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의 귀국 환영행사 장면 중 유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반기는 장면을 떼어내 마치 김 선수를 껴안으려 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영상으로,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누리꾼을 조사. /연합뉴스

7·9급 공무원/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 전문학원과 함께하면 합격은 쉽고 빨라집니다!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개강) 매월 1일
행정직/교육행정직/세무직 경찰직/소방직 전문
사회 귀환 국어 : 승대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251-7959)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igosi.co.kr

의사/약사가 되는 길
PEET/ MEET/ DEET
특별초청: 임영섭 교수 (일반성물학)
MDPass醫학원 (정)(02-2453) mdpass.co.kr